

| 일반논문 |

[일반 논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 연구

A study on koreans in Central Asia

강희진

(한양여대 강사)

차 례

1.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2) 연구방법

2. 고려인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양상

1) 동일화를 통한 주체성 확립

2) 대체(代替)기억을 통한 상흔 극복

3) 상징질서에 대한 일탈과 제 3의 공간 찾기

3. 결론

1.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¹⁾ 문단은 한반도 접경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절이 되었다고 해도 될 만큼 한반도와 먼 곳에서 형성된 '한글문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한글문단은 불모지와 같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²⁾를 당한 후에도 70여 년간 어렵게나마

1)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고려사람'이라고 불렀다. '고려'라는 용어는 한국(또는 조선)을 지칭하는 '까레야'에서 유래한 것이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1990년대 초 한국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자신들을 남북한 사람과 중국의 조선족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사람'이라는 말 대신 '고려인'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이후 단체나 기관 등의 명칭에 의해 '고려인'이 채용되기 시작하여 점차 공식화 되었다.

2) 강제이주란 '주방' 혹은 '유형'을 뜻하는 말로 '개인이나 집단 혹은 어느 하나의 민족 전체를 직·간접적인 탄압에 따라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강압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39,3,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12, p.19 참조.

명맥을 유지해 온 한글문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소비에트시대 고려인 시 문학³⁾ 연구의 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 텍스트의 배경과 개관을 살피고자 한다.

즉, 시 속 연술주체⁴⁾가 보이는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분석하여 하위주체⁵⁾의 의식양상을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둔다.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성/탈식민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서구를 보편화하고 비서구를 식민화 해온 문화제국주의의 논리들을 비판하는 이론을 지칭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이론은 이항대립적 인식의 세계 운영방식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지배공간과 피지배공간에서 나타나는 식민 제국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피식민지인의 거부 반응을 주목한다.⁶⁾

‘하위 주체’라는 용어는 그람시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 대신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한다.⁷⁾ 그람시는 권력의 중심부, 헤게모니에서 소외된 계층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규정하는데 이는 계급, 젠더, 인종, 언어, 문화와 관련된 종속성을 포함한다.⁸⁾ 특히 하위주체는 1985년 가야트리 스피박이 「하위 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1988)에서 인종과 계급에 대한 서구 학계의 시각에 대해 의의를 제기⁹⁾하고 여성 주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면서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스피박에 따르면 억압의 질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특히 하위주체의 발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불합리한 수탈을 당하고 동시에 버려지는 식민지인은 수단화되고 타자화되어 식민지배의 구조 내에서 계획된 이등 국민으로 전락한다.

1937년 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역사적·정치

3) 고려인 시 문학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소비에트시대 고려인 작가가 고려인인 독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민족 말인 고려말로 창작한 시 문학 작품만을 지칭하기로 한다.

4)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술주체라는 용어는 연술내용의 주체를 뜻한다. 또한 텍스트 내에서 의미화과정을 통해 구축되어가는 과정 중의 주체를 의미한다.

5) 하위주체(subaltern)이란 지배계층의 헤게모니에 종속되거나 접근을 부인당한 그룹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피식민지인 등 주변부적 부류가 속한다.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06, p.61.

6) 김춘섭 외, 『문학이론의 경계와 지평』, 한국문화사, 2001, p.379.

7)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 거름, 1993, pp.70~71 참조.

8)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여성문화인문연구소, 2003, pp.420~427 참조.

9) 리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999, pp.13~14 참조.

적·경제적·문화적으로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글로 문학 활동을 감행하였다. 한글이라는 모국어를 매개로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소비에트라는 거대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환원시키지 않은 하위주체들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된 고려인 시 텍스트를 살펴보면 연술주체는 당시 고려인들이 소비에트라는 거대한 사회의 지배 아래에 놓임으로써 하위주체 즉 소위 소수민족으로 겪어야 했던 '열등한 이등 식민'으로서의 다양한 양상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동일화를 통한 주체성 확립, 대체 기억을 통한 상흔 극복, 상징질서에 대한 일탈과 제 3의 공간 찾기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식민주의적¹⁰⁾ 의식 양상의 특징을 살펴 기존의 고려인 시 문학의 평가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고려인 한글 문학이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사람 작가들이 고려사람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말인 고려말로 창작한 문학 작품”¹¹⁾을 일컫는다. 고려인 시문학이 형성된 출발점은 강제이주 후 최초의 한글 신문인 《레닌기치》가 발행된 1938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삼는다.¹²⁾ 이때,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사람 작가가 한글로 창작하고 발표한 작품'이라는 것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생산과 존재가 소련의 이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고려인 시문학은 소련의 정치적 이념과 현실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의식 양상 역시 직접적인 형식보다는 굴절의 형태를 지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려인 문학이 태어난 곳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시 신한촌(新韓村)이다.¹³⁾ 1917년 10월 혁

10) 주지하다시피 탈식민주의의 '탈(post)'은 '벗어나다, 극복하다'라는 저항의 의미와 더불어 '무엇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 시 문학의 연술주체에 주목한다.

11)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 출판부, 2004, p.53.

12) 한진의 말에 의하면 “소비에트 조선문학의 출발점은 보통 1923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해 3월 1일, 삼일운동 4주년을 맞는 날 《선봉》 신문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중략) 처음으로 쏘련에서 조선말로 산 조선사람들의 문학작품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으며 첫 작가들과 시인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후 《레닌기치》 신문이 발간되면서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활동이 재기되었다. 『오늘의 빛』,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90, p.3.

명 이전부터 원동지역에선 여러 종류의 한글잡지와 신문들이 발행되어, 기본적으로 문학의 공간을 할애하고는 있었다. 그러다 1922년 소련이 형성된 후, 문맹퇴치운동에 힘입어 모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 문학활동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었다. 1923년 전연맹 공산당 원동변강위원회와 원동변강 직맹 소비에트 기관지인 <선봉>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됨으로써 1920년대 소비에트 한인문학의 건인차 구실을 하게 된다.

1928년 막심 고리끼의 글이 <선봉>에 게재되는가 하면,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 소재한 스탈린 클럽이 한인문화활동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면서, 카프(K.A.P.F)출신으로 일찍이(1928.7)연해주로 건너온 조명희¹⁴⁾를 비롯하여 이 지역엔 연성용, 채영, 태창춘, 전동혁, 조규동, 조기천, 한아나톨리, 김기철 등의 문인들이 한인문단을 형성하였다.

조명희의 소련 연해주로 망명¹⁵⁾ 후 태동하기 시작한 고려인 문단¹⁶⁾은 1923

13) 1863년 13호의 농가들이 연해주의 지신허로 도강한 이래 연해주 남부 지역 각지에 한인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71년에는 아무르 주 (흑룡주)의 아무르 강 연안 촌락을 형성하여 러시아어로 '블라고베노예', 한국말로 '사만리'라 불렀고, 연해주 동남부 지역의 여러 곳에도 한인 촌락이 형성되었다. 한인들이 해삼위(海蔘威)라 부르는 블라디보스톡에도 1874년에 한인촌 개척리가 형성되었다. 한인들은 이 초기 한인촌을 1911년에 형성된 신한촌과 구별하여 구개척리, 신한촌은 신개척리라 불렀다. 개척리는 한옥식 초옥(草屋) 5개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1911년 폐쇄될 당시에는 4·5백 호에 달하는 대촌으로 발전하였다. 신한촌은 제정러시아 당국이 콜레라 근절을 이유로 블라디보스톡 시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던 한인촌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1911년 봄부터 시 외곽의 변두리 지역에 건설된 한인 집단 거주지를 말한다.

14) 조명희는 1894년 충북 진천군 진천면 백암리 수암부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중앙고보를 거쳐 일본 동경 동양대학 동양철학과에서 수학했다. 일제의 카프 문인 탄압을 피해 1928년 8월 21일(음력 7월 7일)소련으로 망명,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 거주하게 된다. 스탈린에 의한 소수민족 강제이주에 즈음한 소수민족 지도자 숙청작업에 의해 1938년 5월 11일 총살 당하기까지, 그는 블라디보스톡, 우리스크, 하바로프스크 등 소련의 원동지역을 전전하면서 조선사범학교 조선어문학 교사, 조선사범대학 교수, <선봉>의 문학편집자, 소련작가동맹 원동지부 간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의 가치 아래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한편, 제소 한인문학의 후진양성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 그동안 조명희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다룬 <만주 빨치산>을 집필중이던 1937년 가을(9월 18일) 간첩 혐의로 K.G.B에 의해 체포된 후, 명확히 최후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1942년 2월 20일이라는 당국의 사망통보일자 를 그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조명희의 딸 조선아에 의하면 조명희는 1938년 5월 11일 밤 11시에 하바로프스크 감옥에서 일본 간첩의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위치한 '알리셰르 나보이 박물관'에는 아주 작은 '조명희 문학기념실'이 있다. 이곳에는 K.G.B당국의 사망확인서와 당시의 연행상황을 서술한 러시아어로 된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증거품들이 조명희의 육필자료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

15) <레닌기치> 1984년 8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조명희 탄생 90주년 기념에 즈음한 기사에 의하면 조명희가 망명한 동기를 "작가의 선진적인 정치 및 사상적 무장, 날카로운 정론적인 그의 필치, 근로 대중의 이익을 옹호 지지하는 그의 문학, 군내와 해외에서 날로 높아져가는 그의 명성과 위산이 모든 조건들로 하여 조명희는 일본 경찰들의 박해와 억압을 받게 되었다"고 전한다.

년에 창간한 고려인 신문인 《선봉》¹⁷⁾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한다.

강제 이주 이후 1938년 5월 15일에 발간된 《레닌기치》는 고려인 작가들이 한글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지면이 된다. 1956년부터는 ‘문예 페이지’¹⁸⁾를 만들어 고려인 문학의 맥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8년 《레닌기치》에 ‘문예페이지’란이 신설되고, 1960년대에는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서 소련 ‘공화국간 공동신문’으로 거듭난다. 이후 이 신문은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소련 내 전체 고려인들을 대변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는 소련작가동맹 조선인지부가 조직되었다.¹⁹⁾ 조선인작가 쉼치야²⁰⁾가 조직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의 사수식 출판사를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집을 출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레닌기치》의 ‘문예란’과 ‘문예페이지’에는 주로 ‘카자

16) 정상진은 북한과 소련의 문학 예술인들의 회상기인 『아무르란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에서 “소련 고려인 문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포석 조명희 선생이 1928년 소련에 망명한 시기부터이다. 조명희 선생이 소련에 망명해 와서 첫 작품으로 산문시 「깃잡힌 고려」를 썼는데, 이것은 너무나 뜻 깊은 한 개의 사건, 소련 고려인 문학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선언이기도 했다”라고 말한다. 그는 “당시 고려인 청년으로서 이 산문시를 읊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임에서 으레 읊어야 하는 애국 시편으로 되었다. 조명희 선생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또한 그의 지도 아래서 고려인 문단이 결성되었으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7) 《선봉》, 사회 혁명의 선봉에 선다는 이름을 딴 이 정기간행물은 1923년 3월 1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 거주 한인들이 창간한 한글신문이다. 편집자는 한반도의 지사출신으로 출판업에 종사하던 이백초, 이성, 오성목, 이광, 김홍집 등이 자주 바뀌어 맡았다. 발행부수는 1926년 1926년 3권 부 정도였고 기자는 70여 명이었다고 전한다. 1928년 가을(9월8일자)에는 러시아 작가 고리키가 고려인 작가들에게 보낸 편지도 게재된 바 있다. 이 신문은 사실 오래도록 소련지역 고려인 한글 문학의 중심점 역할을 한 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신문 역시 1937년 가을에 강행된 스탈린 정권의 중앙아시아로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 해 9월 중순에 폐간되고 만다.

18) ‘문예페이지’와 ‘문예란’의 차이로는 《레닌기치》 지면 한 면 전체에 문학에 대한 기사나 작품을 실을 때는 ‘문예페이지’라 하였고 문학작품이 어느 한 면의 일부만을 차지할 때는 ‘문예란’이라 하였다.

19) 《레닌기치》 1970년 4월 4일자 기사에 의하면 1970년 2월에 카작스탄작가동맹에 조선인 작가 분과가 정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금년 2월에 카자흐스탄작가동맹 산하 조선인 작가 쉼치야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따라 쉼치야 부로가 5명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김준(쉼치야 콘술판뜨 겸 부로 위원장)
2. 전동혁(부로 위원)
3. 김광현(부로 위원)
4. 김기철(부로 위원)
5. 김세일(부로 위원)

조선인 작가 쉼치야의 소재지는 크슬오르다시이고 쉼치야 부로의 사무실은 《레닌기치》 신문사 청사 내에 있다. 약 5-6월에 쏘련 조선인 문인들의 첫 모임이 있게 될 것인데, 이 모임에는 기성 작가들, 신진 문인들, 그중 《레닌기치》 신문에 자기 작품들을 발표한 사람들로 초대될 것이다.

20) 쉼치야(syektsiya)는 ‘분과’라는 뜻의 러시아어인.

호스탄 작가동맹 조선 쉼치야 소속 작가들의 작품들이 게재되었는데 스탈린 시절의 판에 박은 듯한 경직되고 고루한 작품세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후 《레닌기치》의 문예페이지는 고려인문인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1965년 5월 6일자 지면에는 〈문예작품 현상모집〉이라는 광고가 기재될 정도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수용 폭이 넓었다. 1980년대에 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작품집들이 출간되었고 그 소재 역시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모두 6권의 작품집이 출판되었다. 1970년대에 3권 1980년대 전반기에 3권이 발행되었다. 『시월의 해빛』은 1971년 알마타아 ‘작가’ 출판사에서 발간한 360쪽 분량의 작품선집으로 시월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책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인, 작가, 평론가 25명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씨르다리아의 곡조』는 알마타아 사수식 출판사에서 1975년 출판한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의 공동 작품집이다. 236쪽 분량의 이 작품집에는 단편소설, 시, 희곡, 오체르크, 이야기를 포함한 여러 갈래의 문학작품들이 실려 있다.

1977년에는 김준의 개인 시집인 『그대와 말하노라』가 발간되었다. 총 168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서 발간된 최초의 고려인 작가 개인시집이다. 총 218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1980년대 초기에 발간된 작품집에는 『해바라기』(1982), 『행복의 노래』(1983), 『썩』(1986)가 있다. 『해바라기』는 1982년 알마타아에 있는 카작스탄작가동맹의 사주식 출판사에서 간행된 소비에트 고려인 작가 공동작품집이다. 208쪽 분량의 이 작품집에는 21명의 소비에트 고려인 작가들의 시, 소설, 수필을 수록하고 있다. 『행복의 노래』는 알마타아의 사주식 출판사에서 1983년에 출판한 연성용의 개인 작품집이다. 329쪽으로 구성된 이 작품집에는 75편의 시와 두 편의 소설, 그리고 세 편의 희곡을 수록하고 있다. 『썩』은 김광현의 개인 시집으로 87편의 시와 5편의 서사시, 그리고 한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어로 번역된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의 개인 작품집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시들은 《레닌기치》에 게재 후 작품집에 재

수록 된 작품들이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레닌기치》는 폐간이 된다. 그 이후 새로운 소련 중앙정부로부터 정기 간행물 발간 허가를 얻어 1991년 1월 1일자로 <재소고려 인전국신문>이란 이름 아래 두 개의 신문을 발간하였다. 하나는 한글 일간신문 《고려일보》와 러시아어로 발간되는 주간 《고려》이다. 《레닌기치》 폐간 후 《고려일보》 문예페이지란에는 1996년 11월 23일까지 강태수, 양원식, 리진, 박현, 맹동욱의 시들을 실고 있다. 이 신문은 현재도 발간되고 있으나 지면의 95%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

2) 연구 방법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문학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중엽 이후 구소련 지역 고려인 한글문학에 관한 자료가 단행본으로 소개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고 있다.²¹⁾

고려인 시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장사선, 우정권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²²⁾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고려인의 시와 소설, 평론을 아우르고 있으며 고려인 문학 기초자료 분석으로 《선봉》에 실린 1920년대 문학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요 작가의 간략한 기초 사항과 작품 경향을 살피고 있는 것 역시 특징이다.

다음으로는 김열규의 「조명희 문학에 나타난 소비에트 모국관」과 「어머니의 땅, 중앙아시아에 피어난 푸른 꽃-러시아 동포들의 문학」이 있다. 전자는

21) 정신문화연구원 편, 『캄차카의 가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김연수 엮음, 『소련식으로 우는 한국 아이』, 주류, 1986.

김연수 엮음, 재소 한인시집 『치르치크의 아리랑』, 인문당, 1988.

이명재 편저,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김종희 편,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 출판사, 2004.

장사선 외,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22) 장사선 외,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혁명과 당과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을 문학의 이념으로 삼았던 조명희의 문학은 과연 이 시점에서 문학일 수 있는가 하는 물음, 혹은 그것이 문학이라면 어떤 종류의 문학인가를 묻고 있다. 후자의 글은 한국문학의 범주를 우리말로 창작하고 있는 모든 문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범한국민족문학 내지 범민족문학이라 칭하고 몇몇 시 작품을 파악하여 중앙아시아의 땅을 어머니의 땅으로 삼고 살아온 카자흐스탄의 현지 동포들의 삶의 역정을 희망의 푸른 꽃으로 말하고 있다.²³⁾

이명재는 『소련 지역의 한글문학』, 『통일시대 문학의 길 찾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학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한다. 이명재는 한글작품에 그 논의를 한정하면서 고려인 문학의 특징을 모국어 사랑과 정체성 찾기/방랑의식과 향수/문화갈등과 적응 노력/정론적 송가성향의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하고 있다.

조재수는 고려인들의 시 성격을 세분하고 있으나 각각 해당되는 대표작에 대한 예시가 결여 되어있다.²⁴⁾

또한 이명재 외 6명이 공저한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은 민족정체성과 디아스포라 욕망을 중심으로 하여 고려인 문학을 분석하고 있다. 윤정현은 「중앙아시아 한인문학 연구」를 통해 고려인 문학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²⁵⁾ 1937년 강제이주 직후부터 스탈린 통치기간인 1950년대 중후반까지를 ‘초창기’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이행기’로,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를 ‘정착기’로 규정하고 각 시기 중앙아시아 한인문학의 전개과정을 정치, 사회적 상황 및 문예적 흐름과의 관련선상에서 입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호주지역 이민사회의 한인문학과의 대비적 고찰을 병행하여 중앙아시아 한인문학의 변별적 특성을 나타내고자 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김필영(김필립)의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는 고려인의 문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자료집의 성격이 강한 저서로 볼 수 있다. 저자가 “소비에트

23) 김열규 외,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

24) 김종희 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25) 윤정현, 「중앙아시아 한인문학 연구」, 『국제비교한국학회』 10권 1호, 2002. 6.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포괄적인 한민족 문학사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 문학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 외로 이정희는 회곡문학을 192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각 시기별 구소련 지역 고려인 회곡문학의 특징을 정리해 놓아서 참고가 된다. 김보희의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²⁶⁾은 1922년부터 1990년까지 고려인 아마추어 예술단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과 음악 레퍼토리를 분석하여 고려인 음악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연구를 참조하되 고려인 시 텍스트의 언술 주체의 특징을 탈식민성으로 상징하고 하위 주체의 의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현실의 식민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을 어떠한 양상으로 극복하고 있는가를 주된 논의로 삼는다.

고려인 시의 언술주체는 강제이주를 당한 하위주체로, 조국을 피식민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소비에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상징 질서와 동태로 놓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억압당하고 갈취당하며 무시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제국의 질서에 대항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기에 그들은 힘 없는 하위주체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인 시문학은 탈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 정신의 소산이므로, 인간의 심리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문학과 심리학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²⁷⁾ 또한 작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살필 때 이해가 가능하다. 작품의 이해에 긴요하면서도 작품 자체의 분석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외부의 맥락들²⁸⁾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사회,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생겨난 것이라 볼 때 문학작품은 그것을 낳게 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라는 넓은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기적으로는 1937년 연해주(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의

26) 김보희,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27) 신동욱, 『문예비평론』, 고려원, 1997. 참조.

28)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2004, p.43 참조.

강제이주 후 1990년대 초 소비에트 붕괴에 이르는 50여 년간의 시기를, 지역적으로는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두었다. 또한 작품의 범위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시 작품들²⁹⁾과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레닌기치>³⁰⁾의 문예페이지에 발표된 시 작품들로 하였다.³¹⁾

2. 고려인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양상

탈식민주의란 식민지 국가가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인 예속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화적인 혹은 경제적인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바로 보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적인 억압 구조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담론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비롯한 교육 분야와 경제 문제, 정치 또는 지배 문화에 대한 동경과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새로운 억압 구조를 모두 식민지적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탈식민주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잘 드러내 보여주며, 나아가 그러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화 운동을 총칭한다. 탈식민주의는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식민주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모색하는 일련의 경향을 말한다. 문학연구에서 탈

29) 박일 편, 『조선시집』, 크슬오르다, 알마아따, 카사흐 국영 문예서적 출판사, 1958.

종합작품집, 『시월의 해빛』, 알마아따 작가 출판사, 1971.

종합작품집, 『씨르다리아의 곡조』,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75.

종합시집, 『해바라기』,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82.

김준, 『그대와 말하노라』,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77.

_____, 『숨』,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85.

종합시집, 『꽃피는 땅』,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88.

리진, 『해돋이』,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89.

김광현, 『썩』,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86.

연성룡, 『행복의 노래』, 알마아따 사수시 출판사, 1986.

30)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최대의 민족신문 《레닌기치》는 원동에서 발행되던 《선봉》 신문의 후신으로 강제 이주 후 카작스탄에서 1938년 창간되어 1990년 폐간되었다. 1939년 5월 24일자 《레닌기치》 지면에는 “문예페지”란이 생겨 고려인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31) 대부분의 작품집들이 《레닌기치》에 실린 작품들을 채 수록하고 있으나 몇몇 작품들은 작품집에 처음 발표된 것들도 있다.

식민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³²⁾,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³³⁾, 『문화와 제국주의』³⁴⁾, 호미 바바³⁵⁾의 『차이, 차별, 그리고 식민주의 담론』과 『타자의 문제』 등이 번역·출간되면서부터이다. 앞의 저서들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서구 탈식민주의는 ‘식민성/탈식민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서구를 비판화하고 비서구를 식민화해온 문화 제국의 논리들을 비판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식민지 이전의 원래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둘째는 그것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합병을 제안하는 태도이다.

두 번째 안을 수용하는 탈식민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통문화적 혼성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식민주의는 국수주의에 빠지기 쉬운 전자보다는 다문화 리얼리티가 현재 상황임을 인정하며 보다 더 복합적인 탈식민화 작업을 수행하는 후자를 지향한다. 복합적인 탈식민화 작업은 기존의 식민주의 담론이 제국주의 지배권력의 재생산에 기여하면서도 그 담론의 권위를 위협하고 와해시키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말해 식민지인들은 지배자들의 교화에 따르는 척하지만 항상 자기들 방식으로 하게 마련

32)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1952년에 쓰여진 파농의 처녀작이다. ‘식민주의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아프리카의 문학, 철학, 심리학 등 제 학문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전으로, 혹자는 이 이후에 쓰여진 모든 아프리카 저작들은 이 책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및 서인도 제도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시대에 정치·경제·사회, 특히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식민주의적 잔재 때문에 고통 받는 민중들의 필독서로 꼽기도 한다.

33) 『오리엔탈리즘』은 1978년에 쓰여진 사이드의 대표작이다. 이 저서에서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 방식이자 지배 방식’이다. 곧 오리엔탈리즘으로 총칭되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 인식, 표현의 본질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와 직결된 것임을 밝혀, 압과 힘-지성과 권력의 관계를 식민지적 상황에서 인식시키려 한 것이다.

34) 『문화와 제국주의』는 1993년에 쓰여진 사이드의 12번째 작품이다. 이 책에서 사이드는 탈식민주의 시대에 제국주의를 향한 단순한 비판을 초월해, 예전 식민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화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두 영역의 ‘공동의 경험’과 ‘겹치는 영토’를 중요시하며, 우리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사이드는 필연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옹호하게 된다. 그는 다문화주의가 매우 아날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공존’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문화는 ‘유연함과 관대함’을 다시 말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35) 인도 뽀베이에서 태어나 뽀베이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석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드, 스피박과 함께 대표적인 탈식민주의의 문화 이론가로서 데리다와 라강, 푸코 등 서구 탈구조주의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제3세계를 본질주의화 하려는 경향에 맞서서 양가성·혼성성·모방 등의 용어를 통해 제3의 정치학과 제3의 공간을 찾으려고 모색하였다.

이라는 것이다. 피식민의 ‘홍내내기’³⁶⁾가 지니는 반항적 측면과 식민지 문화에서 드러나는 ‘혼성’이라는 특성이 지닌 전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전략은 먼저 세계적인 권력과 경전적 지배문화를 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심문화의 언어를 전유해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지배 언어에는 자신의 문화적 경험의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습성을 갖게 만드는 것을 탈식민주의에서는 전유라 부른다. 언어를 권력의 매개체로 보고 중심문화의 지배 언어를 식민지의 언어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시대의 언어 형태는 단일 언어를 쓰는 경우, 이중 언어를 쓰는 경우, 다중 언어를 쓰는 경우들로 나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탈식민주의 문학은 식민주의자들과 동일한 상투적 책략과는 다른 반언술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배 언어 행위에 대한 반언술 전략의 장을 보여준다.

고려인의 시문학의 경향이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 속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려인 시문학 속에서 억압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저항의 방법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동일화를 통한 주체성 확립

동일화³⁷⁾는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 가운데 하나이다. 주체는 선망하는 대상을 닮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 주체는 외부의 억압 정도에 비례하여 동일화를 작동하며 이를 통해 단

36) 홍내내기는 나이폴(Naipaul)의 소설 『홍내내는 사람들』에서 잘 드러난다. 헬렌티핀(Hellen Tiffin)은 “나이폴에게서 탈식민 사회는 본질적으로 홍내내는 사회이다”(박종성,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제3의 길 찾기」, 《실천문학》, 1999년 가을호)라는 평을 들었다.

37) 동일화는 자아와 초자아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방어기제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통해 성격 동일화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적을 모방함으로써, 금지된 대상과의 동일화를 이루는가 하면, 공격자와의 동일화를 통해 불안을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두려운 대상의 특징을 닮아 자기 것으로 해서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어떠한 이상적 대상에 기생하여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을 누려보려는 병적 동일화도 있다. 이것은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옮겨다니며 안정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과장되어 있다. 이런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3, pp.167~168 참조.

단한 방어막을 형성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동일시는 지각적이고 동력적인 과정으로서 의식적 행위인 모방에 비해 무의식적 과정으로서 한 인물과 한 공동체에 새롭게 스며드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식민지 상황은 피식민지인에게는 제한된 사고와 활동만 허락한다. 따라서 주체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동일화의 과정에서 구별되고 차별된 역할을 맞게 되면서 타자의 자리에 귀속되게 되는 것이다. 호미바바는 식민지적 상황에서는 인간성의 본질 그 자체가 소외된다고 말한다.³⁸⁾ 식민화된 세계에서 소외된 기억을 가진 주체는 식민사회로부터 벗어난다 해도 그 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피식민적 주체는 식민지적 주체에 의해 정렬된 우월과 열등, 중심과 주변, 위와 아래의 규칙 안에서 종속된 상태인 것이다.

제국주의에 의해 훼손된 주체의 구성에 대해 미셸 페쉴레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로는 동일화(Identification)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善)'한 주체이다. 그 선한 주체는 자신을 규정하는 담론구성체에 '자유롭게 동의' 한다.

둘째로는 '반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를 통해서 나타나는 '악(惡)'한 주체이다. 악한 주체는 강제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그것을 원인 제공자에게 되돌려준다.

선한 주체는 자신을 규정하는 담론구성체에 동의하지만 악한 주체는 강제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그것에 '역대칭' 자세를 취하면서 때로는 옹호하는 태도를 지닌다.³⁹⁾ 강제이주 이후의 고려인 시 문학의 연술주체는 식민주의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표현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동일화의 원리를 따른다. 연술주체는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찬양과 동일화를 통하여 주체를 보호하고 형성하고자 한다.

오, 위대한 우리 조국의

38) 호미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p.98.

39)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p.274~275 참조.

쏘베트공화국이어!
당신은 시월의 불속에서 탄생해
열다섯 형제들을 거느리고
레닌이 가리킨 길 밟아
반세기이상 투쟁의 길,
승리의 길 꾸준히 걸어왔나니
우리 어찌 조국의 위력
자랑 안하리오?
노래 안부르리오?
오, 위대한 우리 조국
쏘베트 공화국이어!

- 허성록, 「쏘베트공화국」 부분⁴⁰⁾

위 시 속 언술주체에게 “우리 조국”은 “쏘베트 공화국”과 동일 선상에 있다. 따라서 ‘나’는 쏘비에트 공화국 일원의 하나인 셈이다. 그래서 “오, 위대한 우리 조국/쏘베트 공화국이어!”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고 그것을 선동적이고 구호적으로 발설하고 있다. 이는 인정받지 못한 제국에서 ‘선’한 주체가 되어 제국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대체(代替)기억을 통한 상흔 극복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마저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폴호즈에서 몇 명만 일하게 되면 혹시라도 민족주의 조성에 대한 혐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였다. 심지어 고려인들은 가정에서도 이웃들과 교제하기를 기피할 정도였다.⁴¹⁾ 이들은 ‘1937년, 강제이주, 민족, 조상’에 대한

40) 《레닌기치》, 1973.3.24. 문예페이지.

어떤 언급도 할 수 없었다. 강제이주와 관련된 끔찍한 체험들, 그리고 이주 후 겪어야만 했던 삶은 호미바바의 말과 같이 일종의 ‘꿈’, ‘다른 사람에 의해 꾸어진 꿈’⁴²⁾과 같은 것이었다. 강제이주 과정에서 겪은 죽음에의 공포는 고려인들로 하여금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러한 외부조건의 억압으로 인해 상위주체(소비에트 제국)와 하위주체⁴³⁾(고려인)간의 틈새의 공간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호미바바에 의하면 기억이란 “현재의 외상을 이해하기 위해 조각난 과거를 짜 맞추어 보는 것, 고통스러운 떠올림”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흔이 얼마나 큰 파장과 징후를 야기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워버릴 수 없는 상흔(傷痕·trauma)⁴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하위주체(고려인)들은 훼손된 기억을 삭제하고 대체(代替) 기억으로 틈새의 공간을 메우고자 하는 탈식민성을 보이고 있다.

즉 상흔의 체험 이전의 기억을 불러와 훼손된 기억과 자리바꿈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근접해 있던 강제이주의 기억은 임의적으로 희미해지고 퇴색하기 쉬운 옛 기억은 다시 호명됨으로써 선명해진다. 여기서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주라는 억압이 각인된 고통이다. 고통의 기억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므로 주체의 무의식 내에서 억압되고 위장된다. 기억의 삭제는 구체적으로 강제이주라는 상흔의 삭제와 은폐를 의미하며 이는 기억의 왜곡을 통해 기억의 영향을 받는 현재를 분리함으로써 상흔을 극복하려는 주체적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택한 대체 기억은 바로 다름 아닌 ‘고향’과 ‘어머니’이다.

조국이란

41) 유 제라쎈, 『제소 조선사람들』,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267.

42)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사, 2002, p.302.

43) 안토니오 그람시의 논의에서 처음 파생된 이 ‘하위주체’라는 개념은 계급, 성별, 인종, 연령, 종교, 직위 등 모든 측면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속한 계층을 가르킨다. 본고에서는 소비에트 제국을 상위주체로, 고려인들을 하위주체로 설정하였다.

44)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트라우마는 흔히 ‘정신적 외상’,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 등으로 번역되면서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정신기능의 교란을 동반하는 깊은 심리적 충격을 일컫는다. 이런 뜻을 함축한 용어로 본고에서는 ‘상흔’과 ‘트라우마’를 구별 없이 사용한다.

고향집 문턱에서 시작되는가

대장부가 마흔 가까워
먼 추억이 식어가도
기쁠 때 그리운건
내 자란 마을이요
괴로울 때 간절한 건
어머니 생각이여라
하여 조국을 어머니라 하는가
하여 조국의 품 어머니품이런가

- 정장길, 「혈연」 전문⁴⁵⁾

위의 시에서 예술주체는 “조국=고향=어머니”를 하나의 등가물로 상정하고 있다. 예술주체에게 있어 고향의 품과 어머니의 품, 조국의 품은 하나인 것이다.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땅, 자신의 영혼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며, 안식처로서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곳이다.⁴⁶⁾ 예술주체는 이렇게 제국 아래 하위주체가 받고 있는 현재의 시련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대체기억으로 ‘어머니’를 호명함으로써 강제이주의 기억이나 훼손된 기억을 삭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억의 삭제와 대체된 기억으로 인하여 예술주체의 주체성은 회복된다. 이는 더 나아가 고통스런 상흔을 전면으로 꺼내 보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상징질서에 대한 일탈과 제 3의 공간 찾기

고려인 시 문학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상징질서로부터의 일탈은 실제 기억을

45) 종합작품집, 『해바라기』,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2, pp.204~205.

46) M. 하이데거, 소광희 역, 『시와 철학』, 박영사, 1975, p.29.

호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실제 기억을 호명하는 행위는 제국으로부터 강요된 억압과 숨김의 상징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일탈은 흔히 어떠한 일상적·항시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현상 또는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범주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나 사고를 가르킨다⁴⁷⁾. 이는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카사흐스탄, 중앙아시아초원으로
강제로 실려왔다.
무인지경 별판에로 실려왔다.
무인지경-
바람에 울부짖는 갈밭,
그 갈밭속엔
메뚜지가 판을 쳤고
뱀이 육살거렸다
밤이 되면
승냥이도 울었다
실상 그것이 생지옥이었다,
오, 1937년! 강제이주!

- 연성웅, 「오, 수남촌」 부분⁴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려인들 사이에서 강제이주는 잊고 싶은,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와 연해주라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의 체험이라는 시간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따라

47) 장상희·이성호·강세영 공저,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1986, p.12.

48) 《레닌기치》, 1989년 11월 29일 문예페이지.

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작품 속에서 강제이주에 대한 기억은 억압된 채 대체 기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위의 시에서 연술주체는 스탈린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텅빈 빈 집들/열어제긴 창문들”을 남겨놓고 배웅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고향을 떠나는 화물열차에 오른다. 어디로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모른 채 “한밤을 자고나면 백령감이 돌아갔고 또 한밤 지나고나면 나ier린 꼴라가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을 겪으며 마침내 “카사흐스탄, 중앙시아초원으로 강제로” 실려와 시작된 고려인들의 생활은 “기막”힌 “생지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식민지적 주체에 의해 금지된 것들에 대해 발설하는 행위 자체는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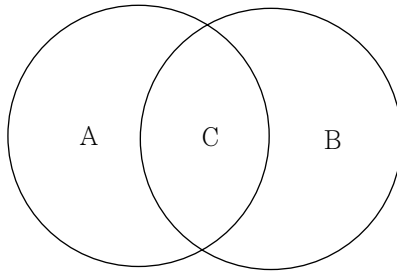
제국과 하위주체간의 적대적인 경계선이 해체되려면, 경계선 양쪽을 넘나들며 ‘혼성성(hybridity)’을 지닌 제3의 공간을 생성시켜야 한다. 제국과 하위주체간의 틈새에서 만들어지는 제3의 공간이야말로 민족적 주체성을 지닌 동시에 타자(제국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에게 배타적이지 않는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⁹⁾

혼성성은 서구문명에 동화시키려는 권력에 맞서는 문화적 힘을 말한다. 이는 역동적인 차이작용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신문명(서구문명)/토착문명(피식민자의 문화)의 본질주의적 대립을 넘어선 제3의 공간에서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생산한다.⁵⁰⁾ 문화적 혼성성을 생성시키는 제3의 공간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사이에 낀 곳에 위치한다. 그곳은 또한 상징계와 실재계, 재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사이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이 제3의 위치에서 생성되는 혼성성이라고 해서 단지 뒤죽박죽된 혼합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혼성성은 서구적 근대문화를 타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권력관계를 역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창조해내는 전략이다.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은 소비에트가 붕괴된 후 식민자로 대변되는 제국과 피식민자의 사이에 낀 곳에 위치하여 혼성성을 띤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9) 나병철, 「한국문학과 탈식민」, 『한국문학과 탈식민주의』, 깊은샘, 2005, p.13 참조.

50)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p.122 참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의 영역은 지배세력 즉 소비에트 제국을 의미하고 B의 영역은 소외되고 억압받는 하위주체로서 조국을 의미한다.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때 B의 문화 일부만이 A의 영역 일부 C로 인정되어 공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할 때는 A와 B의 영역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이 되지 않는 C 영역은 여러 형태로의 억압을 받는다. 물론 이 때 두 가지 욕망의 틀이 존재한다. 제국의 문화를 품어야 할 것이냐, 민족적 주체가 되기 위해 제국의 문화와 단절을 선언하고 전통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양쪽의 경계선 내부와 바깥을 넘나드는 혼성성의 영역 안에 자리한 고려인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자기 주체성을 찾아 지배세력에 저항을 하고자 한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려인 시 문학은 식민지적 규율화에서 벗어나 제3의 공간을 탐구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나는 죽고 죽어
아홉 번을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설레이는 내 마음을
마지막 번 달래려고
꼭 일어나겠습니다
썩르다리아강 기슭에
몇 자욱 더 남겨 놓으려고...
우리 고장 꽃바람에

다시 한번 안겨 보려고…
민요의 예쁜 흐름에
한바탕 또 몸을 적시려고…
그리고 이 몸이
영영 떠나갈 때면
저 하늘 푸른 조각 하나
눈 속에 감추고 가겠습니다

-강태수, 「푸른 조각 하나」 전문⁵¹⁾

연술주체가 '아홉 번'을 죽어서라도 가 닿고 싶은 공간은 '씩르다리야 강 기슭'과 민요가 흐르는 '고장'이다. 그곳은 '꽃바람'이 부는 낙원의 공간이며 순수한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씩르다리야 강'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를 거쳐 흐르는 강 이름이다. 따라서 그곳은 과거 이주 이전의 공간이 아니며 또한 이주 후 소비에트 제국 하의 공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제3의 공간인 것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불러오는 과거 속의 공간으로 또 다른 창조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공간은 제국의 상징계도 민족 본질의 상징계도 아닌 틈새로서의 공간으로 제국과 하위주체 간의 경계선이 해체된 제3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현실의 영역에서 회복되지 못한 문제는 탈위치화되고 재편된 세계로의 지향을 발현하게 된다.⁵²⁾ 고려인 시 문학의 탈식민성은 이렇게 상징질서로부터의 일탈의 양상으로 제3의 공간을 상징하여 현실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치유하고자 하는 양상을 띤다.

51) 《레닌기치》, 1989년 4월 29일, 문예페이지.

52)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p.31 참조.

3. 결론

이상으로 고려인 시 문학의 세계를 탈식민주의적 방법에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즉 시 속 언술주체의 특징을 탈식민성으로 상정하고 하위 주체의 의식 양상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 문단은 한반도 접경지역이 아닌, 단절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한반도와 먼 곳에서 형성된 ‘한글문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한글문단은 불모지와 같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후 7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한글문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고려인 시 문학의 배경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시 신한촌에서 시작한다. 이곳에 카프 출신으로 연해주로 건너온 조명희를 비롯해 연성용, 태창춘, 조기천, 김기철 등의 문인들이 한인문단을 형성하였다. 이후 1937년 강제이주 이후부터 《레닌기치》를 통해 고려인 문학은 맥을 잇는다.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마저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끌호즈에서 몇 명만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민족주의 조성에 대한 혐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였다. 심지어 고려인들은 가정에서도 이웃들과 교제하기를 기피할 정도였다.⁵³⁾ 이들은 ‘1937년, 강제이주, 민족, 조상’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할 수 없었다. 강제이주 과정에서 겪은 죽음의 공포는 고려인들로 하여금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생산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시민임을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망했다.⁵⁴⁾ 게다가 벼농사에 주로 참여했던 이주 1세대 고려인들은 자식 교육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지식인이 되어 각 도시로 분산, 진출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문화와의 단절은 급속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

53) 유 계라썸, 『제소 조선사람들』,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267.

54) 윤형숙·강정원·김경학·이현중·정연옥, 『소련 사회주의체제 해체 후 카자흐스탄 종족민족주의의 부활과 고려인의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제6집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2000, pp.25~26.

다.⁵⁵⁾

고려인 시의 예술주체는 강제이주를 당한 하위주체로, 조국을 피식민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소비에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상징질서와 동맹로 놓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억압당하고 갈취당하며 무시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제국의 질서에 대항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기에 그들은 힘없는 하위주체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국의 질서에 대항한다. 시 문학에 나타나는 탈식민성은 세 가지 구도로 요약된다.

첫째, 동일화를 통한 주체성 확립이다. 동일화는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 가운데 하나이다. 주체는 선망하는 대상을 닮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 주체는 외부의 억압 정도에 비례하여 동일화를 작동하며 이를 통해 단단한 방어막을 형성한다.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 시 문학의 예술주체는 식민주의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표현하기 보다는 제국에 대한 찬양과 동일화를 통하여 주체를 보호하고 형성하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조국이자 고향으로서의 소비에트를 유토피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강제이주의 기억은 고려인들에게 억압되고 자리바꿈과 변형, 왜곡되기에 이른다. 이를 언급하는 것은 곧 소련을 배신하는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하위주체들은 상위주체인 제국과의 동일화라는 방법을 택해 상흔을 극복하고 나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체기억을 통한 상흔 극복의 양상이다. 지울 수 없는 상흔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하위주체들은 훼손된 기억을 삭제하고 대체기억으로 틈새의 공간을 메우고자 한다. 즉 상흔의 체험 이전의 기억을 불러와 훼손된 기억과 자리바꿈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이주의 기억은 임의적으로 희미해지고 퇴색하기 쉬운 옛 기억은 다시 호명됨으로써 선명해진다. 하위주체들이 택한 대체기억은 고향과 어머니로 이를 통해 기억의 영향을 받는 현재를 분리함으로써 상흔을 극복하려는 주체적 의지로 볼 수 있다.

셋째, 상징질서로부터의 일탈과 제 3의 공간 찾기이다. 고려인 시 문학에서

55) 임채완, 「소련 한인사회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8집,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1, p.74.

살펴볼 수 있는 상징질서로부터의 일탈은 실제 기억을 호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식민지적 주체에 의해 금지된 것들에 대한 발설과 실제 기억을 호명하는 행위는 식민 상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으로서 탈식민적 저항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붕괴 후 식민자로 대변되는 제국과 피식민자의 사이에 낀 곳에 위치하여 혼성성을 띤다. 이 혼성성의 영역 안에 자리한 하위주체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 공간은 과거 강제이주 이전의 공간이나 이주 후 소비에트 제국 하의 공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제국과 하위주체 간의 경계선이 해체된 제3의 공간인 것이다. 현실의 영역에서 회복되지 못한 문제는 탈위치화 되고 재편된 세계로의 지향을 발현한다. 고려인 시 문학의 탈식민성은 이렇게 제3의 공간을 상정하여 현실 속의 불안감과 상실감을 치유하고자 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본 글에 있어 탈식민주의 개념을 통해 고려인 시문학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 개념 사용이나 개념 적용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연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고려인 시 문학을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 시 문학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제시를 마련하는 일에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고려인 시 문학 전체를 살피기보다는 주제와 부합되는 작품들만을 선별하여 취했다. 따라서 과연 고려인 시 문학 전체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려인 문학의 평가와는 다른 문학 읽기를 통하여 고려인 문학 해석의 외형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이에 대한 천착(穿鑿)한 논의가 요청된다.

* 주요어 : 고려인, 시문학, 탈식민주의, 탈식민성, 동일화, 하위주체, 제3의 공간.

참고문헌

-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여성문화인문연구소, 2003.
- 김광현, 『쌈』,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6.
- 김보희,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 김연수 엮음, 『소련식으로 우는 한국 아이』, 주류, 1986.
- 김연수 엮음, 제소한인시집 『치르치크의 아리랑』, 인문당, 1988.
- 김열규 외,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
- 김종희 편,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 김 준, 『그대와 말하노라』,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77.
- _____, 『숨』,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5.
- 김춘섭 외, 『문학이론의 경계와 지평』, 한국문화사, 2001.
-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 출판부, 2004.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2004.
- _____,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 _____, 『한국문학과 탈식민주의』, 깊은샘, 2005.
- 리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999.
- 리 진, 『해돌이』,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9.
-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 박 일 편, 『조선헌집』, 크슬오르다, 알마아따, 카사흐 국영 문예서적 출판사, 1958.
- 박종성,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제 3의 길 찾기」, 《실천문학》, 1999년 가을호.
- _____,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06.
- 빌 에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 신동욱, 『문예비평론』, 고려원, 1997.
-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39,3,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12.
-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 거름, 1993.
- 연성룡, 『행복의 노래』,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6.

- 유 게라썸, 「재소 조선사람들」,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윤정현, 「중앙아시아 한인문학 연구」, 『국제비교한국학회』 10권 1호, 2002, 6.
- 윤형숙 · 강정원 · 김경학 · 이현중 · 정연옥, 「소련 사회주의체제 해체 후 카자흐스탄
종족민주주의의 부활과 고려인의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제6집 1호, 서울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2000.
- 이명재 편저,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3.
- 임채완, 「소련 한인사회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8집, 전남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 1991.
- 장사선 외,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 장상희 · 이성호 · 강세영 공저,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1986.
- 정신문화연구원 편, 『캄차카의 가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종합시집, 『해바라기』,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2.
- 종합시집, 『꽃피는 땅』,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8.
- 종합작품집, 『시월의 해빛』, 알마아따 작가 출판사, 1971.
- 종합작품집, 『씨르다리야의 곡조』,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75.
- 호미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 M. 하이데거, 소광희 역, 『시와 철학』, 박영사, 1975.